

1월 둘째주일 낮 예배 대표기도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저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며,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새해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매 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